

Vol. **134**

2024년 1월
해양환경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 E L . 051-797-4800
- F A X .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COP 28에서 IMO-UNCTAD-IRENA 해운 탈탄소화에 관한 회의 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IMO-UNCTAD-IRENA 공동 회의 개최

- ▶ IMO는 UNCTAD, IRENA와 함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의 부대행사로써 해운 탈탄소화에 관한 회의 개최 a),b),c)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12월 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와 공동으로 선박 탈탄소화에 관한 회의 개최
- “2023 IMO 온실가스 전략: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2023 온실가스 전략의 의욕수준을 개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그림 1〉 COP 28에서 IMO-UNCTAD-IRENA 공동 회의



자료 : IMO

- IMO 2023 온실가스 전략에서는 2050년을 전후하여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최소 20%(30% 달성 노력), 2040년까지 최소 70%(80% 달성 노력) 감축하는 목표경로 설정
- IMO는 현재 글로벌 해양 온실가스 배출 가격 메커니즘과 함께 해양연료의 점진적인 온실가스 집약도 감축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종합영향평가(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를 시행하고 있음
- 두 개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패널은 바베이도스(Barbados) 마셜제도(Marshall Islands),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두 번째 패널은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석유·가스 산업 협회인 IPIECA, 타타 스틸(Tata Steel), InterContinental Energy의 민간 부문 전문가가 참석
- 토론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보장하면서 해운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강조하였으며 탄소배출 가격 메커니즘, 글로벌 연료표준(GFS, global fuel standards), 지속가능하고 확장가능한 연료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 실행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 공유

- 패넬토론에서는 IMO 온실가스 전략의 일정 내에서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과 회원국들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강조

■ 중기 조치(measures)에 대한 종합영향평가(comprehensive impact assesement)

- ▶ IMO는 중기 조치(mid-term measure)에 대한 종합영향평가(comprehensive impact assesement)를 통해 선대 및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d),e),f)}
 - IMO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기결합조치들에 대한 종합영향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2023년 9월, 10월에 각각 1차, 2차 회의(meeting)을 개최하여 종합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작업계획 초안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함
 - 2018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IMO 초기전략이 채택되었을 때, 일련의 후보 단기, 중기, 장기 조치들이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채택 전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특히 군소도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최저개발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조치해야 함
 - 2019년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74차 회의에서 후보 조치가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절차(MEPC.1/Circ.885)가 승인되었으며, MEPC 79차 회의에서 개정된 평가절차(MEPC.1/Circ.885/Rev.1) 승인
 - 개정 절차에서는 조치 채택 전 종합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합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과정과 방법론적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종합영향평가는 최소한 다음의 5가지 상호 연관되지만 구분되는 과업으로 구성됨:
 - ① 문헌검토
 - ② 조치가 선대(fleet)에 미치는 영향 평가
 - ③ 조치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
 - ④ 관련 사례연구를 포함한 보완적인 질적/양적 이해관계자 분석
 - ⑤ 누락된 데이터 영역 식별,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및 품질통제(QC, quality control), 불확실성 및 민감도 분석 및 다양한 작업간의 통합
 - 개정 절차는 종합영향평가를 감독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설립,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명시
 - MEPC 80차 회의에서는 IMO 사무총장이 후보 중기결합조치에 대한 종합영향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MEPC.1/Circ.885/Rev.1에 부합하게 종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MEPC 81차 회의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 ▶ **영향평가는 후보 조치의 개발과 병행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된 조치의 특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함**
e), f)
- 영향평가는 단순하고(simple), 포괄적이며(inclusive), 투명하며(transparent), 유연하고(flexible), 증거에 기반하며(evidence-based), 척도에 따라 구분되어야(measure-specific) 함
- 영향평가는 제안된 조치의 특성과 복잡성에 상응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4단계로 진행됨:
 - ① 1단계: 위원회에 제안된 후보 조치에 대한 초기 영향평가(initial impact assessment)
 - ② 2단계: 의견서류 제출(의견이 있는 경우)
 - ③ 3단계: 의견서류에 요청이 있는 경우 종합적 답변(comprehensive response)
 - ④ 4단계: 종합영향평가(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 초기 영향평가는 ① 주요 시장에 대한 지리적 거리와 연결성, ② 화물 가치 및 유형, ③ 운송 의존성, ④ 운송비용, ⑤ 식량안보, ⑥ 재난대응, ⑦ 사회경제적 진보 및 발전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회원국들은 초기 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화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치에 대한 지지자, 관련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은 의견서류에 대한 종합적 답변을 제출해야 함
- 종합영향평가는 평가과정과 방법론적 요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소도서국(SIDS)과 최저개발국(LDC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요구(needs)를 고려하여야 함
- 종합영향평가는 분석에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에 대한 설명, 국가에 미치는 특정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상세한 정성적/정량적 평가, 해당 조치가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영향평가는 증거에 기반하여야 하며(evidence-based), 다음과 같은 적절한 분석 도구와 모형을 사용하여야 함:
 - ① 해양운송비용 모형(maritime transport cost models), 무역흐름모형(trade flow model), 국내총생산에 대한 영향
 - ② 업데이트된 한계저감비용곡선(MACCs,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 ③ 경제무역모형, 운송모형, 결합무역운송모형
- 군소도서국(SIDS)이나 최저개발국(LDCs)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 수집 및 잠재적 영향 분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중장기 조치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 필요

-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장기 조치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f)}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IMO-UNCTAD-IRENA 회의에서는 IMO 2023 온실가스 전략, 온실가스 배출 가격 메커니즘, 부담금, 대체연료 사용 확대 방안, 중기결합조치 등에 대해 논의됨
- 2023년 10월 진행된 종합영향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부 회원들은 영향평가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서 무의미하거나 지연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가정을 단순화하고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
- 정부는 중기결합조치의 개발을 위해 진행되는 종합영향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정재호 전문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chungjh@kmi.re.kr / 051-797-4391)

참고
자료

- a) <https://www.imo.org/en/MediaCentre/Pages/WhatsNew-2022.aspx/> (검색일: 2024.1.4.)
- b) <https://www.imo.org/en/MediaCentre/Pages/WhatsNew-2011.aspx/> (검색일: 2024.1.4.)
- c) <https://www.imo.org/en/About/Events/Pages/IMO-UNCTAD-event-COP-28.aspx/> (검색일: 2024.1.4.)
- d) <https://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ages/Assessment-of-impacts-on-States.aspx/> (검색일: 2024.1.4.)
- e) IMO, MEPC.1/Circ.885/Rev.1, REVISED PROCEDURE FOR ASSESSING IMPACTS ON STATES OF CANDIDATE MEASURES
- f) IMO, MEPC 81/7,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Update on the work by the Steering Committee on the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 Outcomes of the first and second meetings